

# “공무원 월급 두배... 메탄가스 없는 우수탄광이었죠”

## 118년만에 문닫는 화순탄광은

한때 1700명 직원 70만5천톤 채탄 고품질 석탄...지역경제 중심축 역할 270여 명 재취업 위한 지원대책 요구 박물관·체험장 등 관광명소로 조성

“여기가 한 때 1700명 가까운 광부들이 석탄가루를 뒤집어 쓰고 일했던 곳입니다. 30여년 석탄을 캐 왔는데 4일 후 폐쇄된다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화순군 동면 충의로 1064번지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동경 출입구에서 만난 김일만 광부는 지난 30년의 세월이 떠오르듯 쓸쓸한 표정을 지었다. 1905년 첫 삽을 뜬 화순탄광이 30일자로 118년간의 여정을 마무리한다.

이미 지난 4월30일자로 석탄 채취가 중단된 때문인지 탄광엔 적막감마저 감돌았다. 석탄을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는 멈춰있고, 운반용 광차와 곡괭이, 삽, 헬멧 등의 작업장비가 군데군데 눈에 띄었다. 2~3명의 광부들만이 휴게실에 모여 얘기를 나누고 있다.

화순탄광은 1989년 한때 직원 1669명이 상주하며 연간 최대 70만5000톤을 캐내는 전남권 유일의 탄광이었다.

현재 남아있는 화순탄광 소속 근로자는 270명으로 폐광 수순을 밟게 되면 실직상태에 놓이게 된다.

근로자 대부분이 용접·절단·도색 기술과 면허를 갖고 있어 관련 산업 투입이 가능하다. 근로자들은 목포 삼호조선, 대한조선 견학에 이어 목포산업일자리박람회 등에 참여하며 재취업에 나선 상태다.

이곳에서 만난 근로자들은 화순탄광은 화순 지역경제의 원동력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광부 김일만(55)씨는 “일제강점기 석유파동 이후 무연탄 생산량이 연간 70만톤을 넘었던 전성기가 있었다. 그 때가 1970~80년대”라며 “당시 공무원 한달 급여가 25만원일 때 탄광근로자는 50만원이었다. 임금이 높아 군민들 중 경찰, 군청 공무원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탄광에 취직한 사례도 부지기수였다”고 말

했다. 김광현(58)씨는 “지하 480m 갱도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석탄을 채취하다 보니 광부들의 희생도 많았다. 개광 이래 압사, 갱도 무너짐 등으로 연평균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매년 9월9일 화순탄광 회사측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합동제사를 지낸다. 화순 구암 삼거리 한편에는 석탄산업 종사자 추모 공원도 조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화순탄광이 118년간 지역경제에서 중심축 역할을 한 데는 석탄의 고품질도 한몫 했다. 메탄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됐다.

공병삼(57) 대한석탄공사노조 부지부장은 “태백·삼척·사북 탄광 등은 메탄가스가 나오지만 화순탄광은 메탄가스가 없는 전국 유일의 울릉탄광이다. 메탄가스가 나올 경우 작은 불꽃(스파크)이 튀면 폭발 위험이 있어 별도의 안전조치를 해야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며 “화순탄광은 불꽃이 튀어도 안전하고 작업도 용이해 저비용 고효율의 채탄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연탄은 석탄을 가루로 만들어 틀에 넣는 과정을 거쳐야 완성된다. 화순탄광 석탄은 접착력이 우수해 연탄제조 업체들이 가장 선호했던 원료”라며 “유황성분이 낮아 유독가스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화순탄광 지질이 타지역 탄광보다 탄화가 많이 진행된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화순탄광 근로자들은 폐광 후에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병삼 지부장은 “화순탄광을 박물관, 체험장 등으로 관광명소화 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화순탄광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재취업을 위해 군대 장교·부사관 전역자를 우대하는 취업 전형처럼 공업분야, 관내 일자리 등에 채용 가산점 등 우선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탄광은 대한석탄공사가 이관받아 오는 12월까지 폐광에 따른 배수, 철수장비를 운반·관리할 계획이다. **조진용·화순·김선중 기자**

**광업소 연혁**  
화순광업소 순직직원 128명

- 1905년 4월 박현경 의해 최초 광구 등록
- 1934년 7월 종연방직(주)개발 (일본미쓰이기업)
- 1948년 8월 상공부 직할 운영
- 1950년 6월 한국전쟁의 일시 휴광

자료: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 정부, 특별위로금·전업 준비금 지급 갱도 지하수 처리·훼손된 숲 등 복원

### 화순탄광 폐광 이후 대책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가 운영하는 화순탄광이 오는 30일 폐광되지만 곧바로 문을 닫지는 않는다.

갱도 내 지하수 처리 등 배수작업이 본격화된다. 인근 숲 복원과 채굴로 인해 훼손된 땅 복원도 이어진다.

화순광업소가 관리하는 광구는 17개로 3070ha 규모의 면적이다. 지상에서 수직으로 480m까지 지하18개 층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층마다 갱도가 만들어져 있다. 갱도 길이는 88km, 유지 갱도만 45km에 달한다. 폐광 이후 시급한 문제는 지하수 처리다.

하루 6000톤 이상의 지하수를 밖으로 배출해야 한다. 퇴적자 중 일부 요원을 임시적으로 재계약 한 뒤 배수작업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지하수 수질과 오염도는 물론 유출 지점을 찾아내야 한다. 채굴단면과 지질, 지반 상태를 살펴본 뒤 어떻게 폐쇄해야 할 지를 검토한다. 석탄 채굴과정에서 사용됐던 폐시설물 철

거나 활용방안도 논의해야 한다.

화순군은 탄광과 시설물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놓자는 입장이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활용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화순탄광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책 마련과 지역사회의 지원방안을 논의 중이다.

우선 탄광근로자에 대한 보상으로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이 지급된다.

탄광근로자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전업준비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화순광업소 근로자는 263명으로 평균적으로 1인당 2억6000만원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위로금으로 6350만원을 받는 데다가 전업준비금을 2억원 정도 받을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첫 조기폐광이 추진되는 화순광업소의 경우 이달 말 폐광되면 10월 특별위로금을 신청 받고 11월 보상금 지급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조진용 기자**

## 광주 유일 남선연탄 ‘경영난’

생산량 감소에 늘어나는 적자 감당 못해 6000평 부지에 컨 벨트 달랑 1개만 작동 석탄 모두 소비한 후 이달 말께 문 닫아

서민들의 아랫목을 든든하게 데워주던 광주 유일의 연탄 공장이 69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문을 닫는다. 수십 년간 일한 직장을 떠나게 된 직원들은 막막함에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다.

25일 남선연탄에 따르면 남선연탄은 갈수록 심화되는 경영난을 버티지 못하고 최근 폐업을 결정했다.

당초 지난 16일까지 가동할 예정이었으나 남아있는 석탄을 다 소진하지 못해 가까스로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정확한 폐업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직원들은 매일 ‘마지막’ 일지 모르는 연탄을 찍어내고 있다.

지난 23일 찾은 광주 남구 남선연탄. 6000평 공장 부지에서 컨테이너 벨트 1개만이 작동하고 있었다. 이마저도 생산량이 적어 오전 중 작동을 멈춘다고 했다.

이날도 직원들은 오전 7시부터 업무를 시작했지만 1시간

도 안 돼 기계 전원을 내렸다. 수요량이 적어 당일 공장을 찾는 소매업자 차량 수에 맞춰 설비를 가동하는데 근무 시작 이후 들어온 차량은 고작 2대에 그쳤기 때문이다.

12년째 종사하고 있는 김광철(54)씨는 “오랜 기간 일했던 직장을 떠나려니 아쉽지만 그보다도 당장 생계가 걱정이야”고 토로했다.

김씨는 “연탄 사용 감소로 ‘공장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고 걱정은 했지만 이렇게 순식간에 폐업하게 될 줄은 몰랐다. 공장을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들어왔는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막막한 건 김씨뿐이 아니었다. 종사자 10명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들이다.

생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8명 중 3명이 50대다. 정년이 한참 남았음에도 다음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일을 쉬어야 하는 처지다.

송세권(53)씨는 “원래 정비, 용접 등 기술직에 종사하다 2년 전 친구가 일하고 있는 곳으로 왔다. 일도 힘들고 연탄 수요도 줄어오니 오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폐업으로 그만둘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